복음 Matthew 12:3-9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
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
는 흙이 얇 아니하므
나오나 하 으므로 말
는 가시떨 자라서 그
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we was scatterin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
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
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
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James Insoo Jung 정인수

Seok Hoon Seo

Abstract

Rev. Insu Jung is one of the leading representatives of Korean-American church leaders and he is the senior pastor of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USA (KCPC). KCPC has grown very much from 400 members to about 3,000 members under Rev. Jung's leadership. Rev. Insu Jung strongly emphasizes "innovation" of worship and "leadership" of the laity. For the innovation of worship because of the various need of worship of the laity, Rev. Jung brought in contemporary worship in the Sunday service. Also, he strongly emphasizes five senses of worship: the five senses are eye, ear, nose, mouth, touch (feel). His preaching focuses upon the Christian life. Looking at the practicality of preaching, the modern preaching style is narrative preaching. He says the pastor should be an interpreter who struggles between text (Bible) and context (One's life).

들어가는 말

미주장로교회(PCUSA)의 대표적 한인교회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이하 KCPC)를 언급함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KCPC 는 2000 년대에 들어와서 급성장한 교회이다. 2000 년도 초 성도의 수가 800 명 정도였으나 현재(2009 년)는 3,000 명 이상이 매주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수적 증가는 한국을 떠나 형성된 이민 사회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연합장로교회의 성장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봄으로 한민족이지만 다문화[1]를 형성하고 있는 미주사회의 교회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연구함에 KCPC 담임목사인 정인수 목사를 빼 놓을 수 없다.

[1] . 1
1.5 2 . 1
. 2
,
1.5 .

.
.

본 소고에서는 정인수 목사의 다양한 목회의 역량 전반에 걸친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추후로 미루고 그의 설교와 예배신학을 중심으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와 정인수 목사

1995 년 11 월 12 일 KCPC 의 6 대 담임목사로 정인수 목사가 부임하였다. 부임 당시 약 400 명의 성도가 현재는 3 천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2]. 정인수 목사는 1983 년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유학 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외증조부가 신사참배거부로 순교를 하였으며 그 순교자의 믿음의 절개는 정목사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큰 버팀목이 되었다. [3] 그는 그의 저서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innovation)"과 "리더쉽(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4] 이 두 단어는 그의 목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서 "혁신"은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항목처럼 여겨진다. 그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5] 이러한 그의 생각은 KCPC 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듯하다.

KCPC 는 PCUSA 교단소속이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이다. 그러나 KCPC 는 평신도의 리더쉽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116 개의 가정공동체 '동역모임'은 평신도 리더쉽의 핵심이다. 셀(Cell)모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모임의 리더, 동역장은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동역원을 섬기며 목양(pastoral care)하고 있다. KCPC 평신도 조직의 또 하나의 핵심은 '팀 사역'이다. 120 여개의 팀사역은 자발적 자생적으로 탄생되었으며 각 사역의 팀장은 모두 평신도들이다. 팀장에게 인사권과 재정 집행권을 허락하며 당회는 지시부서가 아니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6] KCPC 는 팀사역을 통해 지역을 섬길 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특성을 이용해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케냐에 학원선교와 church planting 그리고 남미 니카라과에 학원선교 등의 해외선교사명도 감당하고 있다.

---

[2] [2009 (9 28 -20)] (, KCPC) p. 84.
[3] , 『 』 (: , 2008) p. 29-33.
[4] , " " (, 2004), " " (, 2008) .
[5] [2009 (9 28 -20)] (, KCPC) p. 19.
[6] , 『 』 p. 67-68.

정인수 목사의 목회전반에 대한 혁신은 그의 예배와 설교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대로 묻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정인수 목사의 예배관

1. 다양성이 있는 예배

KCPC 는 주일예배를 4 번 드린다. 4 번의 예배가 모두 조금씩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크게 1 부와 2 부는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형식에 따라 드려지며, 3 부와 4 부는 소위 열린 예배라고 부르는 찬양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다시 1 부 예배는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로 신선함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 예배의 조화를 한다. 이 예배에서는 최신의 찬양을 부른다. 2 부 예배는 전통적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예배 사회자와 설교자는 가운을 착용하고 장로교의 예전대로 예배를 진행한다. 3 부 예배는 소위 말하는 '찬양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비형식적이며 찬양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드리는 예배이다. 4 부 Com2Worship 예배는 3 부 예배처럼 찬양중심의 예배를 드리나 곡의 선택이 더 현대적이며 젊은이들의 문화 코드에 맞는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오감을 사용하는 예배를 추구한다.[7] 정인수 목사는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한국에서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갖고 온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예배도 변화해야 합니다."[8]그의 이러한 생각은 10 년 갖고 있던 목회의 소신과 일맥상통하다. 그가 연합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는 갈등에서 막 회복 되는 시점이었다. 교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자체 설문에서 성도의 대부분(85%)은 예배를 지목하였고[9]정목사가 이에 부응한 결과라 생각된다.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정인수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였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예배에 적용한 것이 KCPC 의 성장의 동력이라 생각된다.

2. 감동이 있는 예배

오늘의 예배 현장을 두고 예배는 많은데 예배의 감동은 점점 사라져 간다고 말하곤 한다. 정인수 목사도 이점을 지적하며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는

---

7 , p. 61-62.

8 " " (, 2009. 11. 14)

9 , 『21 』 (Tucker GA: KCPC 1997)( ). P. 33.

'미국의 주류교회가 석양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예배에서 오는 신비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10] 그러한 모습은 과거 KCPC 의 예배의 모습에서도 보이게 되였으며 이것이 KCPC 의 예배가 다양성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장로교의 전통적인 예배의 틀 아래 오래 예배들 드리다 보니 성도들이 점점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 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축제적, 창의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감(五感)으로 드리는 통전적 형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11]

정인수 목사의 설교세계

1. 증언자(Eye Witness)

증언은 자신 본 것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함을 말한다. 저명한 설교학자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증언으로서의 설교"에서 오늘의 시대의 설교자의 모습은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인수 목사는 설교자로서의 자신은 증언자(Eye Witness)라고 말한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수십 번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고민합니다."[12] 증언자는 자신의 언어로 본 것을 증거한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풍성한 언어로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생동감은 달라진다. 정인수 목사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평균 2-3 권의 책을 읽으며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음성과 표정, 손짓까지 연습하고 개발한다.[13] 이를 통해 간결하고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서 바른 증언을 위해 모든 설교는 원고화하여 설교를 한다고 한다.[14]

2. Text 와 Context 속에서의 갈등

가끔 설교를 듣다가 보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좋은데 오늘의 삶에 적용과는 동떨어진 설교를 종종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설교는 오늘의 시대에는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어져 간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인수 목사도 들리는 설교를 위해 항상 고민한다고 말한다. "들려지지 않는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10 , 『 』, p. 64.

11

12

13 [2009 (9 28 -20)] (, KCPC) p. 16

14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위해서 청중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용합니다."[15] 설교자는 Text(성경)과 context(현실의 삶) 중간에 서서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김운용은 오늘의 시대의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해석자(interpreter)가 되여야 한다고 말한다.[16] 정인수 목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조금씩 준비한다. 또한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들이 공감하고 변화하는 이야기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꿰뚫어 영성 이야기로 설교를 풀어간다.[17] 그는 들려지는 설교를 위해서 이야기체(Narrative) 형식의 설교를 선호한다.[18]

3. One Point 설교

설교를 볼 때 산탄총처럼 여러 주제가 한 설교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현대 설교학의 흐름은 한 가지 주제로 향해서 나아가는 귀납적 형식의 설교이다. 정인수 목사는 '다양한 주제를 한 설교에 넣으면 혼란을 줄 수 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정조준하는 설교'를 선호한다.[19] 이를 위해 주제를 완전히 소화해야 하며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20] 실제 그의 설교는 연역적 스타일의 설교의 형식을 취하나 하나의 주제로 가려고 노력함을 볼 수 있다.

나가는 말

오늘의 시대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것은 목회현장에서도 요구된다. 정인수 목사는 이러한 목회의 현장에 바르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배의 혁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요구를 파악하며 그것에 부응하는 예배를 만들어 간다. 또한 설교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본문과 삶의 사이에 서서 해석하여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의 다양성과 오감을 강조한 통전적 예배를 지향하지만 성례전에 대한 소홀함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또한

15

16 ,. 『 : 』 (: , 2005) p. 18.

17 , 『 』 p. 246.

18 .

19 [2009 (9 28 -20)] (, KCPC) p. 17

20 .

예배형식의 파괴가 신선함의 측면에서는 수용될 수 있으나, 오히려 예배의 전통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는 예배의 훼손으로 보여 질 수 있다. 한가지 주제를 갖고 설교를 이끌어가는 그의 형식과 이야기체의 설교는 현대설교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며 오늘의 청중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설교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예배와 설교에서 청중을 먼저 생각하는 정목사의 노력은 오늘의 KCPC 의 성장 동인으로 평가해 본다.

Resources:

정인수,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쉽, 서울: 두란노, 2008,
_____,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쉽, 서울: 두란노, 2004.
정인수 외, '2009 목회자 비전 세미나(2009.28-30) 자료집' (미간행)
정인수 외, 21 세기를 바라보는 이민교회의 비전과 과제(미간행), Tucker GA: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1997.
정인수 목사 인터뷰 (2009. 11. 14)